

롯데시티호텔 마포, 메타버스 홈트 체험존 오픈

롯데시티호텔 마포가 국내 호텔 최초로 '야핏 사이클' 체험존을 오픈했다.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하듯 운동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개발해 올 1분기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용 앱이 깔린 태블릿 PC와 연동된 기기를 이용해 세계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홈트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가상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유통 매장으로 주목받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물량 확보·해외 직소싱 상품으로 경쟁력 UP”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고물가 시대에 어울리는 가성비 유통 매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대용량 상품과 함께 가성비 중심의 합리적 소비트렌드의 확산이 창고형 할인점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적인 신규 출점과 차별화 상품을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탄점 오늘 개점...신규 출점 지속 먹거리, 물량 확보로 저렴하게 판매 스페인 포도씨유로 식용유 물가 안정 창고형 할인점만의 상품경쟁력 구축

●경기 남부지역 '新 핵심 상권' 공략

먼저 21호점인 트레이더스 동탄점이 30일 정식 개점한다. 동탄 신도시를 기반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먹거리의 경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8월31일까지 한우등심·채끝, 국내산 냉장 삼겹살·묵심, 호주산냉장 와규 등 30여 종의 패정육 상품 중 1개 구매 시 1만 원 할인받는 '고기 구독권'을 판매한다. 총 4장의 할인권을 삼성카드에 구매 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양한 주류 행사도 마련해 10만 원 이상 고가 와인 전 품목을 삼성카드에 2명 이상 구매 시 20% 할인, 3명 이상 구매 시 30% 할인한다.

지상 1층은 2347㎡ 규모의 임대 매장을 구성해 고품질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컬처클럽(문화센터)과 다양한 브랜드의 식음료 매장을 유치했다.

개발 단계부터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것도 눈에 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건물의 주요 건축 부자재를 저탄소, 자원순환 재활용, 환경성적을 받은 자재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지속적인 신규 출점과 차별화 상품을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21호점인 트레이더스 동탄점 투시도, 미국에서 직수입한 '컷 블루 골프공', 스페인에서 직수입한 '베아올리바 포도씨유' 등 유류류 제품(위부터 시계방향).

기여할 방침이다. 또 LED 조명 설계, 자연 녹지 조성 등 고객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매장 곳곳에 녹여냈다. 직원들은 이마트와 블랙야크가 협업해 17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유니폼 조끼를 착용한다.

권오현 이마트 트레이더스 운영 담당은 "트레이더스만의 압도적인 상품과 가격 경쟁력에 지역 상권 맞춤형 고객 서비스 시설을 더해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쇼핑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직소싱 상품으로 물가 안정 앞장

해외 직소싱 상품을 확대해 창고형 할인점의 강점인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강

화했다. 스페인에서 직수입하는 '베아올리바 포도씨유'가 대표적이다. 2019년부터 스페인의 FJ산체스와 직수입 거래를 통해 연간 28만 병의 포도씨유를 격월로 6차에 걸쳐 들여오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국내 식용유 수요가 급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입점 예정인 포도씨유 수입 일정을 6~8월로 앞당겨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약 50여 일간 지속해온 식용유 구매 수량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탄점에서 선보이는 미국 컷 골프의 '컷 블루 골프공'도 해외에서 가성비로 인기 있는 상품을 직접 계약해 직수입한 경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기로 골프가 대중화되며 숙련된 싱글 퍼퍼 중심으로 고사양의 골프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 3개월간의 현지 업체와 협상을 통해, 컨테이너 단위 대량 계약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타 브랜드 대비 약 40% 저렴한 최상의 판매 가격으로 선보이게 됐다.

노재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은 "해외소싱 업력을 바탕으로 트레이더스만의 차별화된 가성비 상품을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고물가 시대 가성비와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서 창고형 할인점만의 상품 경쟁력을 지속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구광모 LG 회장이 2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친환경 바이오 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LG

LG, 미래 성장동력 '클린테크' 육성

페플라스틱 재활용·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등 강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공장 설립 등 국내·외 2조 투자

LG가 클린테크 사업을 키운다. 클린테크는 탈탄소와 순환경제 체제 구축감이 기업이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5월 말부터 전략보고회를 이어오고 있는 LG는 최근 석유화학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광모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들이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이오 소재 활용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과 페플라스틱·페배터리 재활용 기술 확보,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탄소 저감 기술 강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런 도전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클린테크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전환해 간다는 계획이다.

구 회장은 2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위치한 LG화학 R&D연구소를 방문해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페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 현황과 전략을 살폈다. 구 회장은 "고객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선도적으로 선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하는 이미지를 명확히 세우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R&D 투자 규모와 속도를 면밀히 검토해 실행해가자"고 말했다.

LG는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에 향후 5년간 국내·외에서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 미국 곡물기업인 ADM사와 합작법인(JV)을 통해 2025년까지 미국에 7만5000톤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또 대산공장에는 바이오 원료 생산시설과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페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지난해 12월 600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지분 2.6%를 확보하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10년 동안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투명한 기업문화, 협력사와 함께 만들어요” 오비맥주 '준법문화 준수 서약 캠페인' 실시

오비맥주가 7월8일까지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준법문화 준수 서약 캠페인'(사진)을 실시한다.

임직원과 협력사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준법·윤리경영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맥주 제조부터 포장·운반·소비 전 과정에 걸쳐 오비맥주와 함께하는 원재료와 패키징, 물류, 마케팅과 홍보 부문의 협력사 임직원들도 서약에 동참한다.

또 오비맥주의 10대 원칙과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차별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을 주제로 퀴즈 대회를 연다.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부사장은 "협력사와 함께 준법문화를 안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비맥주 한맥은 맥주와 잘 어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고기 브랜드 고기상과 협업해 '한맥에 착 감기는 한우세트'를 선보였다. 고기상의 고기 마스터가 직접 손질한 1++등급의 최고급 한우 600g, 스테이크 가니쉬(겉돌임), 410mL 한맥잔 2개 등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독일 검찰,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현대차·기아 압수수색

배출가스 조작 21만대 판매 혐의
獨검찰 “부품업체서 조작 장치 공급”
거액의 벌금 부과·리콜 가능성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차·기아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유럽사법 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와 협력해 헤센주 경찰과 프랑크푸르트 검찰, 룩셈부르크 수사당국 소속 140여 명을 투입해 통신 데이터,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의혹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20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디젤 차량을 21만대 이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 검찰은 현대차와 기아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엔진 소프트웨어 장치를 독일의 글로벌 부품업체 보르코바르너그룹 산하 보쉬와 펠파이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품은 유로6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디젤차에 탑재된 요소수 분사 장치와 선택적촉매환원 장치(SCR)인 것으로 알려졌다. SCR은 디젤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요소수

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N2)와 수증기(H2O)로 환원시켜 중성화해 내보내주는 장치다.

독일 검찰은 이 장치가 수시로 가동이 축소되거나 꺼져, 허용된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차량은 현대차·기아 전 모델의 1.1L, 1.4L, 1.6L, 1.7L, 2.0L, 2.2L 디젤 엔진 부차량 약 21만대다. 현대차 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실이 맞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폭스바겐, 벤츠, BMW 등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을 수사해왔고, 여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왔다.

현대차는 독일 3사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공급 받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요소수 제어 장치의 ECU(전자제어장치)는 완성차 업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부품을 썼다고 해도 배기가스 조작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독일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서는 "독일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기아도 독일 완성차업체들처럼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고, 리콜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